# 무더위 날릴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

## 군, 초대형 그늘막·에어컨 쉼터 새롭게 설치… 즐길거리·먹거리 풍성

임실군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아쿠아 페스티벌을 앞두고, 올해부터는 햇빛을 차단하는 초대형 돔과 에어컨이 완비된 휴게 쉼터를 새롭게 설치, 첫선을 보인다.

군은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물놀이 피서객들에게 더욱 시원한 물놀이 축제를 제공하기 위해 폭염 대비 초대형 그늘막(50m×30m)을 설치하고 에어컨이 완비된 쾌적한 휴게공간을 추가해 무더위 속에서도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올해 더욱 강력해진 무더위를 겨냥해 물놀이 시설과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전 세대가 시원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천국'을 만들어, 여타 물놀이장과는 차별화된 시설을 선보일 방침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16일간 연중무휴로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입장료는 일반 8,000원, 임실군민은 6,000원, 오후 2시 이후 입장시에는 2,000원 할인이 적용되고 입장권 구매 시 현장에서 바로 사용가능한 2,000원 상당의 교환권이 제공된다.

임실군이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아쿠아 페스티벌을 앞두고, 올해부터는 햇빛을 차단하는 초대형 돔과 에어컨이 완비된 휴게 쉼터를 새롭게 설치, 첫선을 보인다.

심 민 군수는 "방문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임실 아쿠아 페스티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운영

## 남원시, 드론 활용 식음료·보건 관련 의약품 배송 서비스

남원시는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의 K-드론배송 고도화 사업을 기반으로 남원형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4일부터 본격적인 드론배송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식음료 및 보건 관련 의약품 배송 서비스로, 남원시민과 관광객은 배달앱 '먹깨비'를 통해 드론 배송이 가능한 배달점(10개소)에서 원하는 물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11월 28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배송이 이뤄진다.

남원시는 지난 2월, ㈜아쎄따와 함께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드론배송 분야)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이후 드론 기체의 주요 부품 국산화, 배달앱 연동 시스템 구축, 가맹점 모집, 사전 점검을 위한 시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다.

이번 서비스는 운봉권역과 시내권역으로 나뉘어 권역별 특성에 맞춘 것으로, 산간 지역인 운봉권역에는 보건 관련 의약품 위주로, 관광객이 많은 시내권역에는 읍천리 382, 천원빵, 삼시세끼 김밥 등 분식, 베이커리, 음료 등 먹거리 중심의 배송이 진행된다.

주문은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먹깨비' 앱을 다운로드한 후, 가까운 배달점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배송 서비스는 앱을 통해 주문 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라이더가 드론 배송센터로 물품을 배달하고 드론 배송기체로 배달점에 투하하는 방식이다.(주문-수령까지 약 20~30분 소요)

최근 남원시는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드론배송, 드론레저 분야) 공모 선정 및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지정 등으로 국산 기체 활용 드론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도시로 앞장섬으로써 많은 드론기업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에는 드론 배송거점센터 2개소(노암농공단지,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및 배달점 10개소를 구축하고, 총 172회 드론 비행을 통해 서비스의 안전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드론 배송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AI와 접목된 첨단 물류 서비스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래형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국산 기술을 적용한 드론을 통해 상용화 기반을 다지고, 드론 실증도시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현장에 답이 있다' 시민 의견 청취

## 남원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읍면동 순회간담회 진행

남원시가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읍면동 순회 간담회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이·통장과 발전협의회장, 노인회장, 남녀 새마을 지도자 회장 등 각계각층의 지역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 편안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에서 열띤 토론과 의견 교환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농업기반시설 개선을 비롯해 고령자 복지서비스 확대, 노후 교량 정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카메라 및 마을 안길 가드레일 설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최경식 남원시장은 매회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시정의 중심은 언제나 시민이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남원시는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조광희 순창군 신임 부군수, 주요 사업 현장 찾아 소통

조광희 신임 순창군 부군수가 군정 주요 현안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군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조 부군수는 지난 15일 인계면과 순창읍을 시작으로 적성, 유등, 쌍치, 복흥, 구림면 등 10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관계자들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경천 수변 종합개발사업 △용궐산 자연휴양림 기반시설 조성사업 △섬진강 뷰라인 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요 관광 인프라와 기초생활 기반시설 둘러보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군민 건강 증진 및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 중인 △유등 섬진강 파크골프장 운영 현장과 △쌍치 금정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 현장도 방문했다. 3일간 총 23개 사업장 방문해 사업 전반을 점검을 마쳤다.

조 부군수는 밀접한 생활 인프라 사업은 물론, 관광·체육·농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된 사업의 추진 속도와 성과에 관심을 보이며 각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조광희 부군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와 건의사항은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발효관광재단, 광주 롯데아울렛서 팝업스토어 운영

(재)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윤숙)은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일간 광주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1층 중앙광장에서 '순창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2025년 한국관광공사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순창발효테마파크'가 선정된 것을 기념해, 순창 고유의 발효 문화와 관광자원, 지역 상품, 캐릭터 굿즈 등을 도시민에게 소개하고 지역 관광 홍보와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순창의 발효·미생물 캐릭터 굿즈를 포함해 △썬웨이어드벤처 △가비트리 △희나리목장 △아미딸기체험농장 △비틀도가 등 총 5개 지역 업체가 참여해 관광지 소개, 특산품 판매, 체험형 상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방문객들에게는 순창에서 개최 예정인 8월 23일 꼼순락(꼬마들의 순창 오락실), 10월 17일~19일 순창장류축제, 11월 15일~16일 2025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등 다양한 순창 대표 축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채로운 행사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장에서는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룰렛 이벤트를 통해 순창 굿즈를 증정하며, 인생네컷 촬영, 캐릭터 포토타임, 포토존, SNS 인증 이벤트 등 MZ세대를 겨냥한 체험형 콘텐츠도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 배움e 온라인 학습 수강생 선착순 모집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2025년 배움e 온라인 학습'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배움e 온라인학습'은 스마트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온라인 특화 프로그램으로,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 과정이며, 수업은 주로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되며 강좌별 정원은 10명이다.

자격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일부 강좌는 수강료 외 교재비와 검정료 등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강좌별 강의계획서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남원시통합예약·신청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선착순 접수로 진행, 교육 과정은 4개 분야 11개 강좌로 구성되며 주 1~2회, 강좌별 15회차 과정으로 전문 강사진이 진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한우 스마트팜 번식 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추진

임실군 농업기술센터가 영상기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관내 한우농가 5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이 기술은 적외선 CCTV 카메라를 적용한 딥-러닝 기반의 분만 이미지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한우 발정징후를 탐지하고, 그 결과를 농장주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는 스마트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한우의 발정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센서를 목이나 발목에 부착하거나 체내에 삽입하는데, 이는 가축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질병 전파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확한 번식 시점 예측으로 적기 수정이 가능하여 수태율 향상은 물론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고, 실시간 축사 관찰이 가능하여 농장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진홍영 기자